

사회인야구 '가을잔치' ... 무등기 23일 '스타트'

광주·전남 16개팀 참가 ... 무등리그·광일리그로 진행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서 지역 동호인야구 최강팀 가려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잔치'인 무등기가 펼쳐진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23일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지역 사회인야구인들의 '명품대회'로 꼽히는 무등기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지침과 방역관리를 통해 준비된 대회에는 리그별로 8개팀씩 참가해 '진검 승부'에 나선다.
 개막 첫 주 8강전 8경기가 진행된 뒤, 준결승과 결승이 진행된다. 2021년 우승팀은 11월 7일 가려진다.
 23일 오전 9시 광일리그의 소호시스템과 풀카운

트가 개막전 상대로 만나 대회 첫 승을 노린다.
 이어 그린라인-유니티(오전 11시), 국도한방병원-뉴욕야시장(오후 1시), 시원병원-담양에(오후 3시)가 4강 진출을 타진한다.
 24일에는 무등리그 일정이 펼쳐진다.
 오전 9시 정진산업-한수위교육센터프렌즈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무등기 단골' 에어패스파죽지세-위리어스가 맞대결을 벌인다.
 이어 오후 1시와 3시에는 각각 파트너스-자연환경(유), 금호허리케인-(주)삼진에너지가 열전의 무대를 펼치게 된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우승팀은 각각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원을 받는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공동 3위 팀에는 상금 10만원이 주



어진다.
 개인 타이틀 시상도 이뤄진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는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우수선수과 최우수심판에 대한 시상도 진행 된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나훈)와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최영민)가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를 위해 힘을 보탠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심판을 파견해 공정한 대회를 이끌고,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안

전하고 수준 높은 대회를 위해 경기장 관리와 경기 운영을 맡는다.
 한편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도 대회 후원에 나서 지역 사회인야구인들의 축제에 함께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승점 3점을 확보하라" 시리아와의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하루 앞둔 6일 조규성, 이동경, 김민재 등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파주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오늘 시리아전 손흥민 땀다

손흥민, 최근 3시즌 해외 경기 22만3637km 이동·300시간 비행 해리 케인의 3배에 가까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중책을 맡은 손흥민(29·토트넘)은 다수의 경기 출전에 더해 장거리 이동의 부담까지 떠안고 땀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5일 44개 리그에서 뛰는 남자 선수 26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업무량 보고서를 내고, 선수들의 '혹사'를 막기 위한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수들이 소화한 4만 경기기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손흥민이 국가 간 이동 거리가 많은 선수의 예시로 소개됐다.
 손흥민은 최근 세 시즌 동안 해외 경기를 위해 22만3637km를 이동했다. 비행시간만 300시간에 달한다.
 손흥민의 토트넘 '단짝'인 해리 케인(잉글랜드)은 8만6267km를 움직였다. 비행시간은 123시간이다.
 경기에 출전한 시간은 오히려 케인이 많다.
 케인은 세 시즌 간 159경기(토트넘 159경기·잉글랜드 대표팀 31경기)에서 1만451분을 뛰었고, 손흥민은 172경기(토트넘 152경기·한국 대표팀 20경기)에서 1만3576분을 뛰었다.
 FIFPRO는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는 대부분 유럽에서 열리지만,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뛰기 위해 아시아와 다른 대륙까지 이동해야 한다"며 "손흥민의 대표팀 출전 경기 수는 케인보다 적지만, 이동 거리는 케인의 2.5배에 달한다.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를 위해 300시간(12.5일 이상)이나 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자국이 아닌 다른 대륙의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소속팀 경기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를 소화할 때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FIFPRO는 보고서에서 "2019-2020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동 횟수가 줄었지만, 2020-2021시즌 들어 다시 증가했다"면서 "과도한 국가 간 이동은 선수들의 경기력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FIFPRO는 백백한 경기 일정과 시즌 중과 종료 후 휴식기의 단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축 등이 선수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홈 경기를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경기 이틀 전 입국한 '캡틴' 손흥민(29·토트넘)을 선발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3차전을 하루 앞둔 6일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기용 관련 질문에 "손흥민은 선발로 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KIA 외야수 박정우 '꿈같은 시즌'

육성 선수서 정식 선수로 전환 '0' 번호 달고 1군 엔트리 등록 SSG전에서는 데뷔 첫 안타 "긴장되지만 열심히 하겠다"



부상과 코로나19 악재에도 KIA 외야수 박정우가 '꿈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박정우에게 2021년은 홈런, 정식번호, 부상, 데뷔 안타 등 기억할 게 많은 시즌이

다.
 박정우는 2017년 덕수고를 졸업하고 2차 7라운드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5년 차 선수.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정우는 지난 3월 연습 경기 때 윌리엄스 감독의 눈도장을 찍었다.
 3월 16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며 아마 시절에도 기록하지 못한 홈런을 기록했다. 이날 내야안타와 도루, 좋은 수비까지 선보이며 점수를 받은 그는 5월 1일 마침내 자신의 번호를 얻었다.
 박정우는 육성 선수에서 정식 선수로 전환되면서 '0'이라는 번호를 달고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1·2군을 오가며 기회를 기다리던 박정우는 9월 25일 SSG전에서는 데뷔 안타를 장식했다.
 KIA가 7-1로 앞선 7회 무사 1루, 박정우의 타구가 크게 바운드 되면서 투수 옆을 지나 1·2루 간으로 향했다. 1루수가 달려 나와 공을 잡았지만, 박정우가 낙담하게 1루 베이스를 밟았다. 프로 12번째 타석에서 만든 데뷔 안타였다.
 박정우는 9월 30일 키움전에서는 안우진을 상대로 첫 2루타를 기록했고, 5일 사직 원정을 통해서도 처음 두 경기 연속 안타에도 성공했다.
 박정우는 "긴장돼서 첫 안타를 친 줄도 몰랐다. 그냥 공보고 뛰었다. (주자였던) 최형우 선배가 열심히 뛰어서였다. '제발 제발'을 외치면서 뛰었는데 형우 선배가 내달린 덕분에 2루로 못 던지고 그래서 안타가 된 것 같다"며 "나자완 선배가 원래 첫 안타는 내야안타로 치는 것이라고 그랬다. 선배도 그렇게 안타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웃었다.

또 "올 시즌은 꿈만 같다. 신고 선수였다가 데뷔를 했다.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꿈만 같다"고 이야기했다.
 '꿈같은 시즌'이라고 말하지만 '악몽'의 순간도 있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때에도 사연이 있었다. 선발 출장을 준비했던 박정우는 열이 나면서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고 속을 태웠다. 그리고 다음 연습경기에서 박정우는 홈런쇼를 펼쳤다.
 올림픽 휴식기 때 진행된 연습경기에서는 외야에서 공을 잡다가 무릎을 다쳤다. 부상에서 벗어나 1군 재진입 준비를 하려던 시점에서는 2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정우는 "1군과 시합하면 뭘 보여줘야 한다. 열심히 하다가 다친 것이라서 더 아쉬웠다"



박정우

며 "2군 올라갈 때는 코로나가 터졌다. 2군 올라가기로 해서 들떠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힘들었던 순간을 돌아봤다.
 이런저런 악재에도 잊지 못할 2021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정우는 예년보다 늦어진 정규시즌 일정 덕분에 10월 어필 무대를 갖고 있다.
 박정우는 "아직도 경기가 나가면 긴장된다. 긴장한 탓에 아예 팬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 타석에서 서면 투수만 보인다(웃음)"면서도 "대수비, 대주자, 벤투, 작전 수행 이런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에러하지 않고 벤치에서 파이팅 외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